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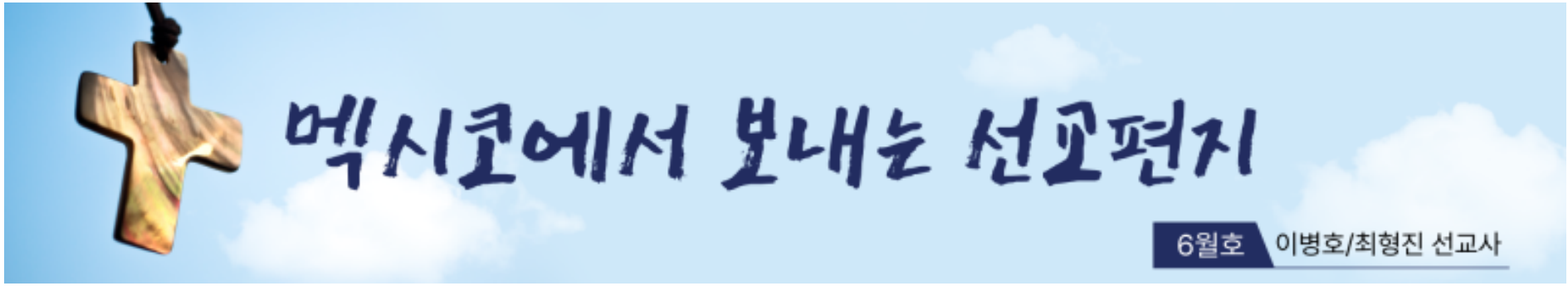
선교지소식

2025년 6월 이병호/최형진 선교사 선교소식

GWU

2025. 6. 27. 11:42

이웃추가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후원선교사님께.
세계 정세가 나날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있고, 이상기후로 생명을 잃고, 집을 잃거나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때에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겠습니다.

지난 한 달 간의 사역과 소식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함께 손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파시피코 교회 사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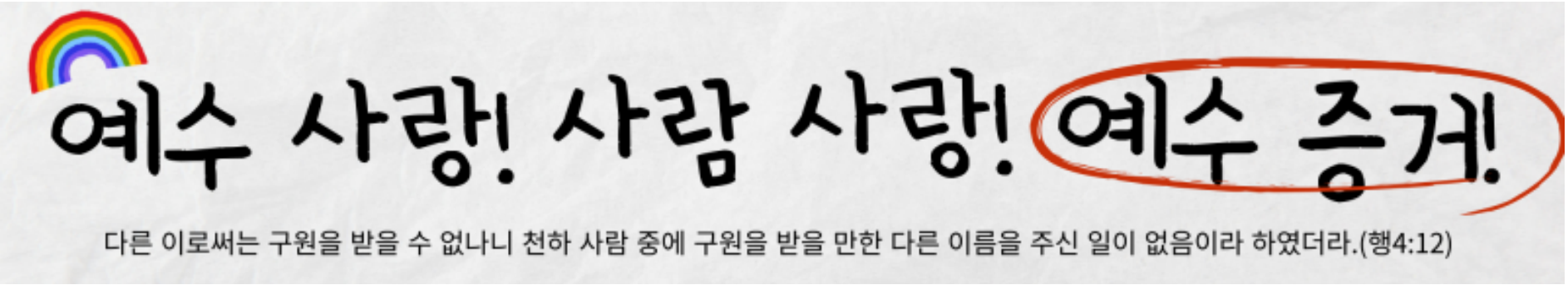
파시피코 교회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고 초청장을 돌려도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교회에 마음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10명 정도가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힘을 얻고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많지 않아도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교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오가는 발걸음이 곧 교회에 정착되는 일로 변화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1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파시피코 교회 어린이 예배

–

지난번 소식지에 기도 부탁드린 대로 6/7(토)일 이곳 한인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총 인원은 72명이었고, 현지 교회분들이 42명이었는데 그중 어린이가 2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4명 중에 교회에 처음 온 아이들은 14명이었습니다.

오전에 세 그룹으로 나눠 전도를 한 덕분입니다. 작년에는 전도를 통해 온 아이가 1명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주일에 교회에 온 아이는 3명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날 어린이 행사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아니라, 전날에는 감기 때문에 못 왔고 주일에는 엄마를 따라 온 아이들입니다. 그 세명의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지도 않고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만 오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작된 어린이 예배가 이 교회에 잘 정작 되어 어린 아이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1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한국 요리 교실

–

최형진 선교사는 현지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하였습니다.
요리교실을 하는 이유는 첫째로 저희의 언어의 발전을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는 집중해서 언어를 발전시켜야 하고, 현지 교회는 이 일을 통해 성도들이 더 연합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잡채와 파전을 준비해서 현지 교인들에게 요리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요리했습니다.
 담임 목사인 로벨리오 목사님과 사모님도 같이하면서 다음에 또 하자고 아주 좋아 했습니다. †

한글 학교

–

한글학교 특별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현지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현지인들에 대한 생각과 문화를 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통해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 하기도 합니다. †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1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1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1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현지교회 설교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현지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설교문을 부지런이 연습하여 현지 언어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학적인 바탕이 매우 빈약한 현지 교회와 교인들에게 건강한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가족 소식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막내 하민이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께서 하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함께 거하였는데, 선생님께서 오는 8월에 사역을 위해 선교지로 가시게 되셔서 갑자기 하민이가 있을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민이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만이라도 데리고 있어 주실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방법은 다시 한국으로 가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하민이는 이곳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첫째 하연이와 셋째 하은이는 지난 3월에 저희가 가서 준비한 집에서 잘 지내며 직장과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하진이도 내년에 본과 3학년으로 편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LA에서 이민국의 단속이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하진이가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1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1

꿈꾸는 자여... 오히려 깨어 있으라!

후원계좌

한국: 990-090819-582 하나은행 (GP 이병호/최형진)

미국: 10582 Katella ave, Anehèm, CA 92804

T:714-774-9191 GPUSA

1

이웃추가

GWU 이웃7명

1